

# 남원 3대 가을축제 내일 팡파르

### 국제드론제전with로봇·제32회 흥부제·남원문화유산 야행 3~6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광한루원·요천 일원에서 열려

남원의 3대 가을축제가 3일부터 6일까지 남원 종합스포츠타운·광한루원·요천 일원에서 일제히 막을 올린다.

드론과 로봇으로 미래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부터 뜻밖의 행운을 만나는 '제32회 흥부제', '광한정허부, 달나라 궁전으로 초대'를 주제로 펼쳐지는 '2024 남원문화유산 야행'으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흥과 멋, 볼거리 즐길거리를 가득 선사할 예정이다.

남원시가 신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펼쳐지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은 로봇을 첨가해,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으로 더 풍성한 행사를 마련한다.

행사는 3일부터 6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되며, '2024 국제드론·로봇 레저스포츠 대회', '2024 남원 드론·로봇 전시 체험 & 컨퍼

런스', '2024 남원 드론공연체험 페스티벌', '2024 남원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등 네 가지 테마로 꾸며진다.

이 외에도 국토부 장관기 초·중·고 전국 드론 축구대회, 국가대표급 비보잉 대회 등 드론·로봇 체험, 멀티 드론쇼, 김태연, 엔플라잉, SG워너비 등이 출연하는 개막축하 공연, 미미미누, 궤도 등 유명 유튜브 강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최고의 관전 포인트로 꼽힐 수 있는 대형 로봇 타이탄 공연이 연일 펼쳐져, 색다른 볼거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32회째를 맞은 올해 흥부제는 '흥부제와 함께 대박 나세요'를 주제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사랑의 광장과 요천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흥부전의 본고장인 남원만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시민참여 마켓형 축제로 거듭나 정체성을 강화한 축제 콘텐츠 등이 다채롭

게 펼쳐질 예정인데 기념행사를 비롯해 공연, 체험 행사 등을 흥부존, 놀부존, 도깨비존, 제비존 4개의 테마 구역으로 꾸민다.

2024 남원문화유산 야행은 낮보다 더 아름다운 남원의 밤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남원문화유산야행은 광한루 창건 신화인 달나라 궁전을 재현해 옥황상제, 견우와 직녀, 토끼와 거북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한 문화유산 야간 탐방 프로그램으로 5회째를 맞은 올해는 '광한정허부, 달나라 궁전으로 초대'를 주제로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광한루원을 비롯해 요천월궁 광장 등지에서 펼쳐진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의 봄에 춘향제가 있다면, 남원의 가을엔 드론제전, 흥부제, 문화유산 야행 등 가을축제가 있다"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에서 전통과 첨단이 조우할 수 있는 다양한 성찬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드론 레이싱 대중화 이끌 380mm급 중대형 경기장 완성

### 남원시, 4일 시범경기

남원시가 고성능 드론의 레이싱 경기가 가능한 경기장을 구축했다.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드론 실증 도시 사업' 중 드론레이싱의 대중화를 위해 추진한 중대형 380mm급 새로운 드론레이싱 경기 플랫폼 구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드론전문회사인 (주)인투스카이와 함께 최근 중가하고 있는 드론레저스포츠 문화를 즐기는 동호인들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2024 남원 국제드론제전'에서 10개국 20명의 국내외 드론레이싱 선수가 참여하는 380mm급 드론 레이싱 시범경기가 개최된다.

시는 옛 서남대에 자유로운 드론비행이 가능

한 안전울타리 및 코스 장애물이 설치된 남원형 드론공원을 조성했다. 올해 드론제전 이후 본격 운영된다.

새로운 드론레이싱 플랫폼은 현재 150mm급 레이싱대회가 기체의 최대 성능에 기반한 경기였다면 새 드론레이싱 플랫폼은 380mm급 기체의 성능을 동일하게 출력·제어할 수 있는 경기장이다.

선수들의 연령대 별 시각적 동체능력이 다른다는 점을 상쇄시켜 보편화한 경기장으로 날개 폭이 대폭 늘어난 중대형 드론의 레이싱을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새로운 드론레이싱 경기 플랫폼을 남원에서 성공적으로 구축해 레이싱 경기 대중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의 새로운 드론레이싱 경기 플랫폼을 날게 될 380mm급 드론.

## 정읍시, 19일까지 재활용 자원 집중 수거

정읍시가 오는 19일까지 폐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 아이스팩, 폐가전제품 등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집중 수거운동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행정·공공기관을 비롯해 병의원, 공장, 공동주택 등 다량의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실천문화를 확산시

키고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 중 재활용품 배출량이 많은 동 지역이나 다량의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기관·시설은 시가 직접 방문해 수거할 예정이다.

읍면지역의 주택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

된 재활용품은 마을 내 배출장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하면 된다.

정읍시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 아이스팩을 모아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수거 교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3대를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상하수도 요금 온라인 통합납부

### 이달부터 홈페이지 24시간 서비스

고창군이 10월부터 '고창군 상하수도 요금 온라인 통합납부시스템'을 운영한다.

'온라인 통합납부시스템'은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계좌 자동이체 신청·해지, 카드 자동결제 신청·해지, 이차 요금 정산, 수용가 명의 변경 신청, 문자 고지 신청·해지 등의 상하수도 민원 서비스를 고창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24시간 제공한다.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

문했던 민원을 PC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요금 납부도 가능하다.

상하수도 요금 온라인 통합납부시스템 접속은 고창군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및 홈페이지 주소창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최주화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과 연계해 군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수도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27일 람사르갯벌센터에서 열린 '2024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포럼'에서 고창갯벌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다짐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 세계유산 고창갯벌 보전·관리 방안 모색

### 갯벌 포럼·갯벌을 보듬장×함께습지 페스타 개최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하고 고창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다.

고창군은 지난 27일과 28일 람사르갯벌센터에서 심덕섭 군수와 동아시아람사르센터 서승오 센터장, 고창수협 김충 조합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포럼' 및 '갯벌을 보듬장×함께습지 페스타'가 열렸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 연구위원의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정책 및 관리 방향' ▲람사르갯벌센터 정영진 센터장의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의 현황과 과제' ▲전남대 생물학과 최원석 교수의 '고창갯벌의 철새 조사를 통한 OUV 확보 방안' ▲행동하는생태교육센터함께지구 최선하 대표의 '세계유산 브랜드를 활용한

고창갯벌의 생태관광' 등이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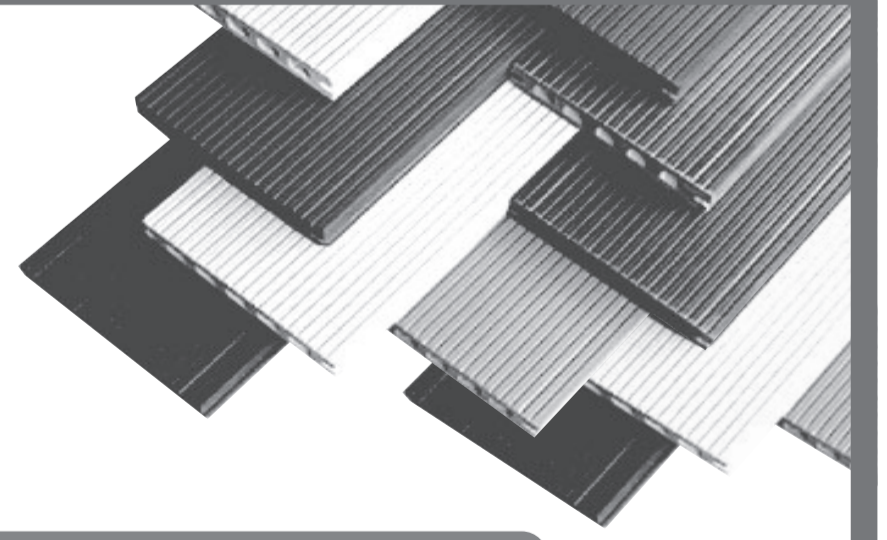
종합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관리의 과제와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기도 했다.

부대행사로 '갯벌을 보듬장×함께습지 페스타'에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홍보캐릭터, 환경·생태교육 등 20여 개의 체험부스가 펼쳐졌고 '고창갯벌과 철새, 샌드아트 공연과 샌드드로잉 체험', '비건요리교실' 등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갯벌 포럼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의 가치를 되새기고 고창갯벌 보존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창갯벌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